

WEBVTT

00:00:10.055 --> 00:00:11.163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263 --> 00:00:12.081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181 --> 00:00:14.042

오늘 이 시간에는 문법
두 번째 시간입니다.

00:00:14.142 --> 00:00:16.085

문장 파트예요.

00:00:16.185 --> 00:00:18.334

문장 파트는 양이 엄청나게
많아요, 여러분.

00:00:18.434 --> 00:00:21.153

양이 상당히 많은데, 압축적으로
제시되는 부분이니까

00:00:21.253 --> 00:00:23.072

압축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.

00:00:23.172 --> 00:00:26.088

첫 번째는 문장이라고 하면
여러 가지가 있는데,

00:00:26.188 --> 00:00:28.355

첫 번째 문장의
성분부터 보겠습니다.

00:00:28.455 --> 00:00:32.353

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면 문장을
이루는 요소는 어절이거든요.

00:00:32.453 --> 00:00:35.115

그 어절들이 어떤 역할을
하느냐에 따라서 7개로

00:00:35.215 --> 00:00:37.239

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0:37.339 --> 00:00:41.169

주어, 서술어, 목적어, 보어, 관형어,
부사어, 독립어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00:41.269 --> 00:00:44.591

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몇 개의
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,

00:00:44.691 --> 00:00:47.418

이러한 요소를 문장
성분이라고 합니다.

00:00:47.518 --> 00:00:48.980

주어, 목적어, 서술어, 보어.

00:00:49.080 --> 00:00:51.247

특히 이 네 개를
주성분이라고 얘기하죠.

00:00:51.347 --> 00:00:55.429

주어는 문장에서 동작, 상태, 성질의
주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주어예요.

00:00:55.529 --> 00:00:57.729

목적어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.

00:00:57.829 --> 00:01:02.804

쉽게 말하면 누구를, ~을에 해당하는
게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.

00:01:02.904 --> 00:01:04.288

보어는 딱 이거예요.

00:01:04.388 --> 00:01:05.283

두 개밖에 없어요.

00:01:05.383 --> 00:01:07.770

되다, 아니다라는 서술어
앞에 오면 보어입니다.

00:01:07.870 --> 00:01:09.411

나는 경찰이 아니다.

00:01:09.511 --> 00:01:15.225

나는 철수가, 교사가
아니다라고 하면, 보세요.

00:01:15.325 --> 00:01:16.111

써줄게요.

00:01:16.211 --> 00:01:22.916

철수가 교사가 아니다라는 문장이
있으면 아니다 앞에 오는

00:01:23.016 --> 00:01:26.226

이게 보어고, 철수가 이거는
뭐냐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.

00:01:26.326 --> 00:01:28.831

주어, 보어, 서술어
이렇게 되는 거죠.

00:01:28.931 --> 00:01:32.485

주어의 동작, 상태, 성질 따위를
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게

00:01:32.585 --> 00:01:34.487

바로 서술어인데, 서술어가
제일 중요합니다.

00:01:34.587 --> 00:01:36.497

서술어에 따라서 모든
게 달라집니다.

00:01:36.597 --> 00:01:38.909

서술어의 자릿수라고

하는 게 있는데.

00:01:39.009 --> 00:01:41.961

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기
위해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

00:01:42.061 --> 00:01:43.399

요구하는 문장 성분.

00:01:43.499 --> 00:01:45.878

나는 밥을 먹었다, 이걸
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.

00:01:45.978 --> 00:01:47.579

즉,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죠.

00:01:47.679 --> 00:01:50.545

예를 들어서 예쁘다
같은 경우는 뭐냐면

00:01:50.645 --> 00:01:52.872

예쁘다는 한 자리
서술어가 되는 거고,

00:01:52.972 --> 00:01:55.449

먹다 같은 경우는 두 자리
서술어가 되는 거죠.

00:01:55.549 --> 00:01:57.828

먹다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니까?

00:01:57.928 --> 00:01:59.470

주어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.

00:01:59.570 --> 00:02:02.179

주어하고 목적어가 필요하니까
두 자리 서술어죠.

00:02:02.279 --> 00:02:03.573

그럼 잘 보세요, 여러분.

00:02:03.673 --> 00:02:07.352

두 자리 서술어는 세 가지
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.

00:02:07.452 --> 00:02:13.584

주어, 목적어가 되거나
주어와 보어가 되거나.

00:02:13.684 --> 00:02:18.021

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주어와
필수 부사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

00:02:18.121 --> 00:02:22.195

주성분은 아니지만 문장에서 반드시
필요한 문장 성분이거든요.

00:02:22.295 --> 00:02:25.835

나는 원빈과 닮았다라고
하면 닮았다는 서술어는

00:02:25.935 --> 00:02:29.591

원빈과라고 하는 부사어가
반드시 필요한 거죠.

00:02:29.691 --> 00:02:31.980

나는 답았다 그러면
문장이 어색하잖아요.

00:02:32.080 --> 00:02:36.745

원빈과라고 하는 부사어가 필요한데
그게 바로 필수 부사어예요.

00:02:36.845 --> 00:02:40.580

그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는 뭐가 있냐면
주다 같은 경우가 세 자리죠.

00:02:40.680 --> 00:02:46.206

뭐가 있냐면 주어, 목적어,
필수 부사어, 그다음에 서술어.

00:02:46.306 --> 00:02:47.623

이런 구조거든요.

00:02:47.723 --> 00:02:48.911

주다.

00:02:49.011 --> 00:02:51.066

나는 철수에게 책을 주다
이렇게 되는 거거나

00:02:51.166 --> 00:02:53.969

또는 삼다 같은 경우도
마찬가지예요, 삼다.

00:02:54.069 --> 00:02:59.347

나는 철수를 제자로 삼다, 이런 게
바로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.

00:02:59.447 --> 00:03:01.722

서술어의 자릿수도 기억을
해두셔야 됩니다.

00:03:01.822 --> 00:03:06.277

부속 성분이라고 하면 문장에서 말
그대로 이제 부속되는 거죠.

00:03:06.377 --> 00:03:09.511

부속한다는 것은 이제 보충
설명해준다, 이런 뜻입니다.

00:03:09.611 --> 00:03:11.810

체언을 수식하는 건 관형어입니다.

00:03:11.910 --> 00:03:16.253

부사어는 용언, 관형어, 다른
부사어, 문장을 꾸며주거나

00:03:16.353 --> 00:03:18.899

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
하는 게 바로 이제 부사어인데.

00:03:18.999 --> 00:03:22.492

많은 게 바로 이제 부사어가
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.

00:03:22.592 --> 00:03:23.949

관형어는 딱 하나예요.

00:03:24.049 --> 00:03:27.366

관형어는 앞에서 뒤에
체언을 꾸며주는 건데.

00:03:27.466 --> 00:03:29.580

이 관형어도 선생님이 설명을
좀 하나 해볼게요.

00:03:29.680 --> 00:03:30.666

보세요.

00:03:30.766 --> 00:03:31.728

여기가 보실까?

00:03:31.828 --> 00:03:32.953

새 차 보이시나요?

00:03:33.053 --> 00:03:34.206

보이죠, 새 차.

00:03:34.306 --> 00:03:40.404

아빠 차, 그다음에 빨간 차.

00:03:40.504 --> 00:03:44.309

그다음에 가는 차
이렇게 한번 볼까요?

00:03:44.409 --> 00:03:47.480

여기 앞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뒤에
오는 차를 전부 다 꾸며주잖아요.

00:03:47.580 --> 00:03:49.411

관형어입니다.

00:03:49.511 --> 00:03:52.727

관형어, 이 어절에서
관형하는 역할을 하는.

00:03:52.827 --> 00:03:55.586

관형이 뭐냐면,
관형부터 설명할까요?

00:03:55.686 --> 00:03:58.892

The brave man이라고
하는 영어가 있어요.

00:03:58.992 --> 00:04:01.484

애는 형용사죠.

00:04:01.584 --> 00:04:03.311

형용사고요, 애는 뭐예요?

00:04:03.411 --> 00:04:05.189

관사죠, 그렇죠?

00:04:05.289 --> 00:04:06.651
애 합쳐서 뭘 꾸며줘요?

00:04:06.751 --> 00:04:08.456
뒤에 오는 man을
꾸며주는 거죠, 맞습니까?

00:04:08.556 --> 00:04:11.798
그러면 관사, 형용사가
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.

00:04:11.898 --> 00:04:16.326
관사,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
보시면 The brave man 할 때

00:04:16.426 --> 00:04:20.998
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가
앞에 명사를 꾸며주거든요.

00:04:21.098 --> 00:04:23.500
그게 바로 관형이에요, 관형.

00:04:23.600 --> 00:04:25.617
관형한다 이런 겁니다.

00:04:25.717 --> 00:04:27.122
관형사가 되는 거죠.

00:04:27.222 --> 00:04:30.044
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
거는 전부 다 차라고 하는

00:04:30.144 --> 00:04:31.961
명사를 꾸며주니까
관형이에요, 관형.

00:04:32.061 --> 00:04:38.121
그런데 문제는 이 새라고 하는
단어는 관형사입니다, 관형사.

00:04:38.221 --> 00:04:40.447
관형사예요, 관형사.

00:04:40.547 --> 00:04:44.392
애는 원래 명사를 꾸며주기
위해서 태어난 애예요.

00:04:44.492 --> 00:04:45.660
그래서 관형사죠.

00:04:45.760 --> 00:04:46.988
아빠 차는 뭘니까?

00:04:47.088 --> 00:04:49.404
아빠 차는 명사고요, 명사.

00:04:49.504 --> 00:04:51.309
빨간 차는 형용사입니다.

00:04:51.409 --> 00:04:54.475

가는 차는 동사가 되는
거죠, 가는 차는 동사.

00:04:54.575 --> 00:04:57.353

품사는 다르지만 하는
역할은 똑같은 거예요.

00:04:57.453 --> 00:04:58.526

이해되시겠습니까?

00:04:58.626 --> 00:05:00.278

그게 바로 관형어가 되는 거죠.

00:05:00.378 --> 00:05:01.459

부사어.

00:05:01.559 --> 00:05:04.654

독립어는 혼자 쓰이는 게
바로 독립어가 됩니다.

00:05:04.754 --> 00:05:08.567

그러면 다음 내용으로
넘어가서 문장의 짜임은

00:05:08.667 --> 00:05:11.917

문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
있느냐 이 차이인데요.

00:05:12.017 --> 00:05:13.444

문장의 구조와 종류인데.

00:05:13.544 --> 00:05:15.287

문장은 우선 간단합니다.

00:05:15.387 --> 00:05:17.696

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눠집니다.

00:05:17.796 --> 00:05:21.113

홀문장은 주어, 서술어 관계가
한 번 나타나면 홀문장이고,

00:05:21.213 --> 00:05:24.492

겹문장은 주어, 서술어 관계가
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인데.

00:05:24.592 --> 00:05:28.892

겹문장 중에서는 이어진
문장과 안긴 문장,

00:05:28.992 --> 00:05:30.290

안은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

00:05:30.390 --> 00:05:33.451

이어진 문장은, 이쪽으로
올게요, 그냥.

00:05:33.551 --> 00:05:36.421

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면,
여기다 쓰겠습니다.

00:05:36.521 --> 00:05:41.393

이어진 문장하고 안은
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.

00:05:41.493 --> 00:05:42.351
보세요.

00:05:42.451 --> 00:05:48.774
이어진 문장은 주어+서술어,
주어+서술어 이런 구조예요.

00:05:48.874 --> 00:05:53.308
그런데 안은 문장은 주어+서술어가
있고, 그다음에 가운데에

00:05:53.408 --> 00:05:55.780
주어+서술어가 안겨 있다,
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

00:05:55.880 --> 00:05:59.524
애를 뭐라고 하나면 안긴
문장이라고 한다, 안긴 문장.

00:05:59.624 --> 00:06:04.284
안긴 문장은 뭐라고 하나면
절이라고 합니다, 절.

00:06:04.384 --> 00:06:06.791
~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

00:06:06.891 --> 00:06:08.091
절이라고 합니다, 절.

00:06:08.191 --> 00:06:09.961
그 절의 종류가 5개가 있거든요.

00:06:10.061 --> 00:06:13.777
그 5개의 절의 종류에
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

00:06:13.877 --> 00:06:14.871
됐어요?

00:06:14.971 --> 00:06:17.046
그러면 그 절의 종류가
지금 5개가 나오는데,

00:06:17.146 --> 00:06:18.767
그 절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.

00:06:18.867 --> 00:06:21.782
절의 종류는 여러분이 암기를
해두시는 게 좋은데.

00:06:21.882 --> 00:06:25.335
뭘 암기하면 되냐면
표지판처럼 표지가 있어요.

00:06:25.435 --> 00:06:26.647
어떤 표지가 있어요, 볼까요?

00:06:26.747 --> 00:06:31.116

문장이 명사처럼 전체 문장 안에서 주어,
목적어, 부사어 역할을 하고요.

00:06:31.216 --> 00:06:32.484
이거예요.

00:06:32.584 --> 00:06:33.973
음, 기, 이거 두 개 외우세요.

00:06:34.073 --> 00:06:35.115
음, 기.

00:06:35.215 --> 00:06:36.932
음 또는 ㅁ 또는 기예요.

00:06:37.032 --> 00:06:37.709
잘 보세요.

00:06:37.809 --> 00:06:40.680
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
할 때 맨 마지막 서술어는

00:06:40.780 --> 00:06:41.811
상관 안 하셔도 되고.

00:06:41.911 --> 00:06:45.116
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
행복하다, 가운데 서술어가 있잖아.

00:06:45.216 --> 00:06:47.526
가운데 서술어에 기가 붙었어요.

00:06:47.626 --> 00:06:49.758
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
명사절이 되는 거죠.

00:06:49.858 --> 00:06:52.758
가운데 서술어에 기가 붙은
거예요, 명사절이 되는 거죠.

00:06:52.858 --> 00:06:55.943
그 명사절이 되면서 플이라고
하는 조사가 붙었죠.

00:06:56.043 --> 00:07:00.181
행복하기를이니까 목적어의 역할을
하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.

00:07:00.281 --> 00:07:02.272
그다음에 관형절 볼까요?

00:07:02.372 --> 00:07:05.435
한 문장이 전체 문장의
관형어로 안긴 문장인데.

00:07:05.535 --> 00:07:09.152
관형어로 안긴 문장인데, 전체
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.

00:07:09.252 --> 00:07:13.110
즉, 다시 말하면 은 ㄴ,

는, 을 르, 던.

00:07:13.210 --> 00:07:14.692
이 네 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.

00:07:14.792 --> 00:07:16.122
가운데 서술어입니다.

00:07:16.222 --> 00:07:17.060
감동을 주었다.

00:07:17.160 --> 00:07:18.370
맨 마지막 서술어는 빼고요.

00:07:18.470 --> 00:07:19.791
보세요, 여기 봅니다.

00:07:19.891 --> 00:07:24.580
여기에서 큰이라고 하는 것도
역시 크다에 니 붙으면서

00:07:24.680 --> 00:07:26.654
뒤에 오는 감동을
꾸며주는 거거든요.

00:07:26.754 --> 00:07:27.815
이것도 관형절입니다.

00:07:27.915 --> 00:07:30.576
보다에 니 붙으면서
영화를 꾸며주잖아요.

00:07:30.676 --> 00:07:31.810
이것도 역시 관형절이야.

00:07:31.910 --> 00:07:33.899
관형절이 두 개가 안겨
있는 문장입니다.

00:07:33.999 --> 00:07:34.811
아시겠죠?

00:07:34.911 --> 00:07:39.256
친구들과 본 영화는 나에게 큰
감동 할 때 니 둘 다

00:07:39.356 --> 00:07:41.407
관형절임을 알 수 있는 거죠.

00:07:41.507 --> 00:07:45.406
이렇게 표지판처럼 길으로
드러난 표현들이 있거든요.

00:07:45.506 --> 00:07:47.198
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.

00:07:47.298 --> 00:07:49.115
부사절 볼까요?

00:07:49.215 --> 00:07:52.247
한 문장이 전체 문장의

부사어로 안긴 문장인데요.

00:07:52.347 --> 00:07:53.683
전체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.

00:07:53.783 --> 00:07:54.748
이것도 외우셔야죠.

00:07:54.848 --> 00:07:58.355
이, 게, 도록, 아서, 을,
르수록 이런 것들인데.

00:07:58.455 --> 00:08:01.235
이가 시리게 차가웠다, 왜?

00:08:01.335 --> 00:08:02.984
시리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고,
거기에 게가 붙은 거니까

00:08:03.084 --> 00:08:04.195
그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.

00:08:04.295 --> 00:08:06.947
시리게 차가웠다,
이렇게 되는 거죠.

00:08:07.047 --> 00:08:11.557
나는 밥이 없이 산다라고 하면
없다에 이가 붙었잖아요.

00:08:11.657 --> 00:08:14.921
이가 붙으면서 산다를 꾸며주니까
이것도 역시 부사절이 되는 거죠.

00:08:15.021 --> 00:08:17.071
서술절이 제일 어렵습니다, 여러분.

00:08:17.171 --> 00:08:20.307
서술절은 한 문장이 전체
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거고.

00:08:20.407 --> 00:08:22.182
전체 문장의 서술어
역할을 하는 거고.

00:08:22.282 --> 00:08:25.794
다른 안긴 문장과 달리 별도의
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아요.

00:08:25.894 --> 00:08:28.013
그러니까 다시 말하면
표지가 아예 없어요.

00:08:28.113 --> 00:08:29.278
보세요.

00:08:29.378 --> 00:08:31.505
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.

00:08:31.605 --> 00:08:35.525
연우는 키가 크다 하면 주어+주어+서술어의

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8:35.625 --> 00:08:39.806
키가 크다라고 하는 게 주어+서술어니까
전체 하나의 절이죠, 절.

00:08:39.906 --> 00:08:41.556
주어+서술어니까 하나의 절이잖아요.

00:08:41.656 --> 00:08:45.997
그 절이 어떤 역할을 하나면 전체
주어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니까

00:08:46.097 --> 00:08:47.838
서술절, 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08:47.938 --> 00:08:49.183
이해되니, 애들아?

00:08:49.283 --> 00:08:52.142
토끼는 앞발이 짧다라고 하면 앞발이
짧다가 주어+서술어잖아요.

00:08:52.242 --> 00:08:58.224
그러면 전체 주어에 서술어 역할을
하는 거니까 서술절이 되는 거야.

00:08:58.324 --> 00:09:00.194
그러니까 서술절은 어떻게 외우라고?

00:09:00.294 --> 00:09:02.656
주어+주어+서술어 이런
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9:02.756 --> 00:09:07.291
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
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긴 문장.

00:09:07.391 --> 00:09:10.117
~고, ~라고와 같은
인용격 조사를 붙여서.

00:09:10.217 --> 00:09:11.307
이거 쉽죠.

00:09:11.407 --> 00:09:13.880
~고, ~라고 이거
두 가지만 외우면 되죠.

00:09:13.980 --> 00:09:16.797
소크라테스는 악법도
법이더라고 말했다.

00:09:16.897 --> 00:09:19.967
특히 따옴표 있으면 직접
인용인데, 라고를 쓰고요.

00:09:20.067 --> 00:09:24.629
지수의 말이 옳다고 말했다 할 때
이 고는 간접 인용이 되는 거죠.

00:09:24.729 --> 00:09:25.751
됐어요?

00:09:25.851 --> 00:09:30.446
간접 인용일 때는 고가 쓰이고,
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가 쓰인다.

00:09:30.546 --> 00:09:32.319
서술절이 제일 어렵다.

00:09:32.419 --> 00:09:36.320
나머지는 표지판처럼 외워두셔야지
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.

00:09:36.420 --> 00:09:37.706
됐어요?

00:09:37.806 --> 00:09:40.493
그다음에 이제 문법
범주의 종류인데.

00:09:40.593 --> 00:09:43.447
사실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
설명할 게 아닙니다, 이게.

00:09:43.547 --> 00:09:46.369
한 문장으로 설명할 것들이
아니라 상당히 좀 어렵고

00:09:46.469 --> 00:09:48.066
양도 상당히 많아요.

00:09:48.166 --> 00:09:51.330
핵심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할
것 설명하고 가겠습니다.

00:09:51.430 --> 00:09:53.778
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에
따라, 이건 쉬워요.

00:09:53.878 --> 00:09:56.717
평서문, 의문문, 명령문,
청유문, 감탄문으로 나뉜다.

00:09:56.817 --> 00:09:58.392
이건 어렵지 않아요, 여러분.

00:09:58.492 --> 00:10:00.632
높임 표현부터 조금씩 가야겠죠.

00:10:00.732 --> 00:10:03.841
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상대
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,

00:10:03.941 --> 00:10:07.169
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,
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

00:10:07.269 --> 00:10:09.001
이거 설명하겠습니다.

00:10:09.101 --> 00:10:11.717
이쪽으로 오실게요.

00:10:11.817 --> 00:10:19.203
첫 번째는 주체 높임.

00:10:19.303 --> 00:10:21.609
주체 높임은 뭐가 높은
거냐면 주어가 높은 거다,

00:10:21.709 --> 00:10:23.502
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,
주어가 높은 거다.

00:10:23.602 --> 00:10:27.488
예를 들어 선생님께서,
이렇게 하자, 여러분.

00:10:27.588 --> 00:10:29.780
보세요, 단어를 만들어 볼게요.

00:10:29.880 --> 00:10:36.800
선생님, 나, 책, 주다.

00:10:36.900 --> 00:10:38.518
여기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.

00:10:38.618 --> 00:10:43.764
선생님 1번, 나 앞에서 2번이라고 하고
나머지 1, 2, 3, 4번의 단어를

00:10:43.864 --> 00:10:45.798
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.

00:10:45.898 --> 00:10:48.524
1번을 주어로 해서
문장을 만들어 볼게요.

00:10:48.624 --> 00:10:49.696
1번 주어로 해서.

00:10:49.796 --> 00:10:54.001
제일 첫 번째, 1번을 주어로
하면 그게 주체 높임이에요.

00:10:54.101 --> 00:10:55.773
어떻게 되냐, 나머지 이용해서.

00:10:55.873 --> 00:10:57.048
봅시다.

00:10:57.148 --> 00:11:01.090
선생님께서 그다음 어떻게 돼요?

00:11:01.190 --> 00:11:10.954
나에게 책을 주셨다라고 하면
이게 바로 이제 높임 표현,

00:11:11.054 --> 00:11:12.372
주체 높임이 나타난 거거든요.

00:11:12.472 --> 00:11:15.905
주체 높임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
첫 번째는 께서로 바뀌어요.

00:11:16.005 --> 00:11:17.717
조사가 바뀌는 거예요, 조사가.

00:11:17.817 --> 00:11:19.604
첫 번째 조사가 바뀌는 거고.

00:11:19.704 --> 00:11:25.833
주셨다라고 하면 주시었다인데,
여기 시가 들어가죠, 시.

00:11:25.933 --> 00:11:28.593
이런 걸 뭐라고 하나면
좀 어렵습니다.

00:11:28.693 --> 00:11:34.084
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
합니다, 선어말 어미.

00:11:34.184 --> 00:11:35.425
길어요.

00:11:35.525 --> 00:11:37.822
이게 아마 문법 표현 중에
제일 길걸요, 아마.

00:11:37.922 --> 00:11:39.023
주시었다.

00:11:39.123 --> 00:11:42.448
시가 들어가면 높임을 나타내는 거고,
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거예요.

00:11:42.548 --> 00:11:46.435
그다음에 세 번째는
특수 어휘가 있어요.

00:11:46.535 --> 00:11:48.361
특수 어휘는 이런 거죠.

00:11:48.461 --> 00:11:52.701
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가 아니고
진지를 드신다, 진지를 잡수신다.

00:11:52.801 --> 00:11:55.674
이런 게 바로 이제 특수
어휘가 되는 거예요.

00:11:55.774 --> 00:11:57.981
그다음에 예를 들어서
선생님, 나, 책, 주다에서

00:11:58.081 --> 00:11:59.981
2번을 주어로 해서
문장 만들어 볼까요?

00:12:00.081 --> 00:12:05.016
2번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

이거는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.

00:12:05.116 --> 00:12:10.996
객체 높임은 뭐냐면 목적어나
부사어가 높은 사람일 때

00:12:11.096 --> 00:12:12.334
객체 높임이 나타나는 거예요.

00:12:12.434 --> 00:12:13.383
가볼까요?

00:12:13.483 --> 00:12:19.817
나는 선생님께, 어떻게 돼요?

00:12:19.917 --> 00:12:22.714
책을 드린다 이렇게 되죠.

00:12:22.814 --> 00:12:25.713
그럼 이걸 뭐가 바뀌는 겁니까?

00:12:25.813 --> 00:12:28.383
첫 번째, 애도 역시
마찬가지로 조사가 바뀝니다.

00:12:28.483 --> 00:12:30.874
에게가 아니고 께로 바뀌는 거죠.

00:12:30.974 --> 00:12:34.836
드린다는 뭐냐면 특수
어휘가 쓰였어요.

00:12:34.936 --> 00:12:40.539
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
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가 없죠.

00:12:40.639 --> 00:12:43.256
그런데 여러분, 나중에 할
텐데 중세 국어 때는

00:12:43.356 --> 00:12:47.917
객체 높임도 역시 선어말 어미가
있었습니다, 중세 국어 때는.

00:12:48.017 --> 00:12:51.199
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는 없어진
거예요, 사라진 거예요.

00:12:51.299 --> 00:12:54.922
이 두 개가 바로 이제 주체 높임과
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죠.

00:12:55.022 --> 00:12:56.706
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.

00:12:56.806 --> 00:12:58.785
주체 높임은 주어가 높은 거예요.

00:12:58.885 --> 00:13:00.552
선생님께서 주시었다.

00:13:00.652 --> 00:13:03.374

시다, 시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,
특수 어휘 들어가는 거고.

00:13:03.474 --> 00:13:07.186

객체 높임은 조사 바뀌는 거고,
그다음에 특수 어휘를 이용하는 거죠.

00:13:07.286 --> 00:13:08.832

그러면 상대 높임은 뭐냐?

00:13:08.932 --> 00:13:12.248

이 첫 번째 문장을 선생님께서 나에게
책을 주셨다, 이 문장을요.

00:13:12.348 --> 00:13:13.378

이쪽으로 올까요?

00:13:13.478 --> 00:13:17.737

엄마한테 얘기하고, 엄마라는
청자한테, 어머니라는 청자,

00:13:17.837 --> 00:13:19.519

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?

00:13:19.619 --> 00:13:20.580

엄마, 엄마.

00:13:20.680 --> 00:13:25.131

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엄마,
태동이가 책 주던데 이러겠지만,

00:13:25.231 --> 00:13:26.503

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

00:13:26.603 --> 00:13:31.691

엄마, 선생님께서, 께서는
안 바뀌네요, 그렇죠?

00:13:31.791 --> 00:13:37.032

나에게가 아니고 저에게 책을
주셨어요, 이렇게 되겠죠.

00:13:37.132 --> 00:13:40.388

주셨어요, 이렇게 됩니다, 요.

00:13:40.488 --> 00:13:42.052

그다음에 친구한테는 뭐라고 해요.

00:13:42.152 --> 00:13:44.912

친구야, 선생님께서,
이건 안 바뀌죠.

00:13:45.012 --> 00:13:48.304

나에게 책을 주셨어,
이것도 안 바뀌죠.

00:13:48.404 --> 00:13:52.698

즉, 다시 말하면 주체
높임은 변함이 없어요.

00:13:52.798 --> 00:13:54.748

주어가 높은 사람이니까
변함이 없죠.

00:13:54.848 --> 00:13:57.701

다만 상대방이 누구냐에
따라서 뭐가 달라지냐.

00:13:57.801 --> 00:14:00.391

요가 붙느냐 안 붙느냐
이렇게 달라지는 거죠.

00:14:00.491 --> 00:14:02.924

물론 상대 높임은 단계가
6단계가 있어요.

00:14:03.024 --> 00:14:06.481

주셨습니다, 주셨어요.

00:14:06.581 --> 00:14:07.525

이런 거 있어요.

00:14:07.625 --> 00:14:15.381

앉으십시오, 앉으시게, 앉아요,
여기 앉으시오, 앉아, 앉아라.

00:14:15.481 --> 00:14:18.720

이런 것들처럼 높임의
단계가 6단계 있거든요.

00:14:18.820 --> 00:14:20.214

상대 높임의 단계입니다.

00:14:20.314 --> 00:14:23.475

이게 바로 청자가 누구냐에
따라서 높임이 달라진다.

00:14:23.575 --> 00:14:27.445

이걸 뭐라고 하나면 상대
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.

00:14:27.545 --> 00:14:28.980

뭐라고 한다고요?

00:14:29.080 --> 00:14:30.219

상대 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.

00:14:30.319 --> 00:14:31.149

아시겠죠?

00:14:31.249 --> 00:14:33.255

상대 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.

00:14:33.355 --> 00:14:34.342

이게 높임이에요.

00:14:34.442 --> 00:14:37.163

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한
줄로 정리하기가 어렵죠.

00:14:37.263 --> 00:14:38.658

하나만 더 해볼까요, 여러분?

00:14:38.758 --> 00:14:41.115
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

00:14:41.215 --> 00:14:43.027
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
00:14:43.127 --> 00:14:44.309
둘 다 맞아요.

00:14:44.409 --> 00:14:46.624
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,
이건 틀리죠.

00:14:46.724 --> 00:14:47.913
이건 어떨까요, 여러분?

00:14:48.013 --> 00:14:50.392
선생님 저의 말씀 좀 들어주세요.

00:14:50.492 --> 00:14:51.465
맞아요, 틀려요?

00:14:51.565 --> 00:14:52.650
맞습니다, 여러분.

00:14:52.750 --> 00:14:56.718
저의 말씀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
대표적으로 특이한 단어예요.

00:14:56.818 --> 00:14:59.444
똑같은 형태인데 높임말도
되고 낮춤말도 됩니다.

00:14:59.544 --> 00:15:02.106
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
낮춤말도 되는 거예요.

00:15:02.206 --> 00:15:03.067
되게 특이하죠?

00:15:03.167 --> 00:15:04.884
말씀이라는 단어는 낮춤말도 돼요.

00:15:04.984 --> 00:15:05.950
특이하죠?

00:15:06.050 --> 00:15:09.490
이게 바로 이제 높임법인데,
높임법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

00:15:09.590 --> 00:15:12.247
여러분이 조금 이해할
수 있을 것 같죠.

00:15:12.347 --> 00:15:15.846
시간 표현은 뭐냐면 과거,
현재, 미래예요.

00:15:15.946 --> 00:15:17.698

그럼 사건시, 발화시가
뭔지 알아야죠.

00:15:17.798 --> 00:15:20.336

발화시라고 하는 건
말을 한 시점이고요.

00:15:20.436 --> 00:15:22.873

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.

00:15:22.973 --> 00:15:24.081

그러면 질문할게요.

00:15:24.181 --> 00:15:27.518

과거시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걸까,
발화시가 먼저 일어난 걸까?

00:15:27.618 --> 00:15:29.188

사건시가 먼저 일어난 거죠.

00:15:29.288 --> 00:15:30.805

난 아침에 밥을 먹었다.

00:15:30.905 --> 00:15:31.772

생각해 보세요.

00:15:31.872 --> 00:15:32.778

지금 말했잖아요.

00:15:32.878 --> 00:15:34.084

아침에 밥을 먹었죠?

00:15:34.184 --> 00:15:35.777

그게 사건이 먼저
일어난 거란 말이야.

00:15:35.877 --> 00:15:36.793

사건시가 먼저.

00:15:36.893 --> 00:15:38.735

현재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똑같죠.

00:15:38.835 --> 00:15:39.980

나는 밥을 먹는다.

00:15:40.080 --> 00:15:41.536

미래는 나는 밥을 먹겠다.

00:15:41.636 --> 00:15:46.006

미래시에는 사건시가 나중에
일어나고 발화시가 먼저죠.

00:15:46.106 --> 00:15:50.032

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우리가
앞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.

00:15:50.132 --> 00:15:52.662

이것도 역시 피동과
사동이라고 하면, 보세요.

00:15:52.762 --> 00:15:54.289

이런 거예요.

00:15:54.389 --> 00:15:57.132
여기다 쓰죠.

00:15:57.232 --> 00:16:05.824
아기가 밥을 먹다라고
하는 문장이 있어요.

00:16:05.924 --> 00:16:09.560
사동은 영어의
사역동사하고 똑같아요.

00:16:09.660 --> 00:16:11.561
사역동사가 뭐지?

00:16:11.661 --> 00:16:13.710
make, have,
help 목적어+동사원형.

00:16:13.810 --> 00:16:14.874
해석 어떻게 됩니까?

00:16:14.974 --> 00:16:17.213
목적어가 ~하게 하다,
시키는 문장이예요.

00:16:17.313 --> 00:16:19.136
사동은 시키는 문장이예요.

00:16:19.236 --> 00:16:20.253
누군가 시켜야죠.

00:16:20.353 --> 00:16:23.946
엄마가, 존칭 생략합니다,
엄마께서 생략합니다.

00:16:24.046 --> 00:16:31.136
아기에게 밥을 먹이다, 이렇게
되는 거죠, 먹이다.

00:16:31.236 --> 00:16:32.423
그다음 피동은 뭘니까?

00:16:32.523 --> 00:16:34.278
피동은 영어의 수동태랑 똑같아요.

00:16:34.378 --> 00:16:36.835
목적어가 주어로 오고
be동사+p.p+by.

00:16:36.935 --> 00:16:40.445
좀 어색합니다, 우리 국어는.

00:16:40.545 --> 00:16:44.769
밥이 아기에게 먹히다,
이렇게 되는 거죠.

00:16:44.869 --> 00:16:46.051
이게 피동이에요.

00:16:46.151 --> 00:16:48.066

사동하고 피동이에요.

00:16:48.166 --> 00:16:50.774

사동을 만드는 방법, 피동을
만드는 방법이 비슷하거든요.

00:16:50.874 --> 00:16:53.131

이쪽으로 오면서 설명하겠습니다.

00:16:53.231 --> 00:16:56.512

보시면 주어 스스로가
행동하는 건 능동.

00:16:56.612 --> 00:16:57.677

피동 먼저입니다.

00:16:57.777 --> 00:17:01.161

남의 힘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
것을 피동이라 한다.

00:17:01.261 --> 00:17:06.013

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
이, 히, 리, 기를 붙이거나.

00:17:06.113 --> 00:17:09.779

이, 히, 리, 기가 들어가거나
~되다, ~어 지다, ~게 되다

00:17:09.879 --> 00:17:10.985

이렇게 나타나는 거.

00:17:11.085 --> 00:17:13.778

이, 히, 리, 기밖에 없는데, 애는 이,
히, 리, 기, 우, 구, 추까지 있어요,

00:17:13.878 --> 00:17:15.354

사동 표현은.

00:17:15.454 --> 00:17:18.051

~되다, ~어 지다, ~게
되다 이렇게 되는 거고.

00:17:18.151 --> 00:17:20.385

사동 표현은 주어가 행위를
직접 하는 것을 주동,

00:17:20.485 --> 00:17:22.602

행위를 시키는 걸
사동이라고 하는데.

00:17:22.702 --> 00:17:26.037

사동 표현은 주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
이, 히, 리, 기, 우, 구, 추를

00:17:26.137 --> 00:17:28.518

붙이거나 ~시키다, ~게
하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

00:17:28.618 --> 00:17:30.204

바로 사동입니다.

00:17:30.304 --> 00:17:31.857

시키는 문장이예요, 시키다.

00:17:31.957 --> 00:17:34.875

~하게 되다, 이게
바로 피동 표현이죠.

00:17:34.975 --> 00:17:37.482

부정 표현은 안 부정,
못 부정인데.

00:17:37.582 --> 00:17:39.353

안 부정은 뭐냐면 의지 부정이에요.

00:17:39.453 --> 00:17:40.512

밥을 안 먹는다.

00:17:40.612 --> 00:17:42.203

밥을 안 먹겠다는 의지죠.

00:17:42.303 --> 00:17:43.695

또 있어, 상태 부정도 있어요.

00:17:43.795 --> 00:17:47.360

하늘이 푸르지 않다고 하면
푸르지 않다고 하는 게

00:17:47.460 --> 00:17:50.119

푸르지 않은 그 상태
부정이죠, 단순 부정입니다.

00:17:50.219 --> 00:17:53.112

못 부정은 뭐냐면
두 가지인데, 능력 부정이에요.

00:17:53.212 --> 00:17:57.913

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밥이 없거나
아니면 이빨이 없거나 이런 거죠.

00:17:58.013 --> 00:18:00.955

그다음에 외부 상황에
대한 부정이에요.

00:18:01.055 --> 00:18:02.473

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갔다.

00:18:02.573 --> 00:18:03.801

비가 왔기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.

00:18:03.901 --> 00:18:05.882

외부 상황에 의한 부정.

00:18:05.982 --> 00:18:08.531

그다음 아니하다,
못하다를 사용한다.

00:18:08.631 --> 00:18:11.439

특히 안, 못을
사용하면 짧은 문장.

00:18:11.539 --> 00:18:14.224

안 먹다 짧은 문장이고, 못
먹다 짧은 문장이예요.

00:18:14.324 --> 00:18:17.418

안 먹다, 짧은 안 부정,
못 먹다, 짧은 못 부정.

00:18:17.518 --> 00:18:18.421

너무 쉽잖아요.

00:18:18.521 --> 00:18:19.695

밥을 먹지 아니하다.

00:18:19.795 --> 00:18:21.723

먹지 아니하다, 긴 안 부정.

00:18:21.823 --> 00:18:25.140

먹지 못하다, 긴 못 부정
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18:25.240 --> 00:18:26.126

아시겠죠?

00:18:26.226 --> 00:18:29.599

이게 기본적으로 이제
문장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다

00:18:29.699 --> 00:18:32.140
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.

00:18:32.240 --> 00:18:34.457

문제로 개념 확인 하고 가겠습니다.

00:18:34.557 --> 00:18:38.443

부사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반드시
필요한 주성분은 아닙니다.

00:18:38.543 --> 00:18:41.569

일부 필수 부사어들이 있을 뿐이죠.

00:18:41.669 --> 00:18:43.932

농부들은 비가 오기를
손꼽아 기다렸다.

00:18:44.032 --> 00:18:45.797

비가 오기, 딱 보이죠?

00:18:45.897 --> 00:18:47.607

기가 보이니까 명사절을 안은 문장.

00:18:47.707 --> 00:18:51.035

소풍을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.

00:18:51.135 --> 00:18:54.874

~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
하면 이진 뭐냐면

00:18:54.974 --> 00:18:59.216

소풍을 가기 위해서 아침
일찍 일어났다고 하면

00:18:59.316 --> 00:19:01.224

나는이라는 주어가
생략되어 있잖아요.

00:19:01.324 --> 00:19:03.653

나는 소풍을 가려 한다,
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.

00:19:03.753 --> 00:19:04.954

이어진 문장입니다.

00:19:05.054 --> 00:19:07.734

높임 표현에는 주체,
객체, 상대 높임이고요.

00:19:07.834 --> 00:19:13.395

남의 힘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 것 피동,
주어가 행위를 시키는 것 사동.

00:19:13.495 --> 00:19:20.827

아기가 엄마에게 업혔다라고
하면 목적어가 있으면

00:19:20.927 --> 00:19:25.132

사동하고 피동은, 이쪽으로
다시 한번 올까요?

00:19:25.232 --> 00:19:26.556

보세요.

00:19:26.656 --> 00:19:29.004

밥을이라는 목적어가 사동에서는
그냥 내려오지만,

00:19:29.104 --> 00:19:30.498

애는 주어가 되잖아요.

00:19:30.598 --> 00:19:33.933

그래서 피동 같은 경우는
목적어가 거의 없어요.

00:19:34.033 --> 00:19:36.295

사동은 목적어가 남아
있을 수 있어요.

00:19:36.395 --> 00:19:39.058

물론 피동 중에서, 나는
발을 밟혔다라고 하면

00:19:39.158 --> 00:19:40.575

발을, 목적어 있죠.

00:19:40.675 --> 00:19:42.750

밟히다, 이런 거 같은
경우는 피동이지만

00:19:42.850 --> 00:19:47.255

문장의 의미로 당연히 당하는
문장이니까 피동이잖아요.

00:19:47.355 --> 00:19:50.956

그런데 대부분 이제 목적어
유무로 따질 수가 있어요.

00:19:51.056 --> 00:19:52.664

그게 좀 더 쉬워요.

00:19:52.764 --> 00:19:55.096

그럼 여기에서 아기가 엄마에게
업혔다, 목적어 없잖아요.

00:19:55.196 --> 00:19:56.255

목적어 붙여 보세요.

00:19:56.355 --> 00:19:57.530

엄마를 업혔다, 안 되죠?

00:19:57.630 --> 00:19:58.724

아기를 업혔다, 안 되잖아요.

00:19:58.824 --> 00:20:02.582

여기에서는 아기가 엄마에게 업혔다고
하니까 피동 표현이 적절하죠.

00:20:02.682 --> 00:20:04.859

됐니?

00:20:04.959 --> 00:20:10.769

그럼 문제 한번, 유형
문제로 가보겠습니다.

00:20:10.869 --> 00:20:16.672

작년 여러분을 괴롭혔던
문제인데, 좀 어려울 겁니다.

00:20:16.772 --> 00:20:18.259

가볼게요.

00:20:18.359 --> 00:20:21.578

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
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

00:20:21.678 --> 00:20:24.903

그 구조를 명확하게
파악하기가 어렵다.

00:20:25.003 --> 00:20:29.692

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
파생어인지 판별하기가 어렵고,

00:20:29.792 --> 00:20:33.720

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
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

00:20:33.820 --> 00:20:35.223

파악하기가 쉽지 않다.

00:20:35.323 --> 00:20:40.619

민물고기하고 문장에서 주어가
어떤 건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.

00:20:40.719 --> 00:20:43.411
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
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게

00:20:43.511 --> 00:20:46.243
바로 뭐냐면 직접 구성
요소 분석입니다.

00:20:46.343 --> 00:20:51.048
직접 구성 요소는 어떤 말을 직접
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을 때

00:20:51.148 --> 00:20:57.773
나오는 요소인데, 위의 민물고기에서는
민물과 고기가 합쳐진 거죠.

00:20:57.873 --> 00:21:01.649
민과 물고기가 합쳐진 게 아니라 민물과
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.

00:21:01.749 --> 00:21:04.866
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
적용할 수 있는데.

00:21:04.966 --> 00:21:07.594
이렇게, 그러니까 민물이라고
하면 민물도 또 나뉘어지잖아요.

00:21:07.694 --> 00:21:11.433
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
보면 한 단어가 합성과 파생 과정이

00:21:11.533 --> 00:21:16.252
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
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.

00:21:16.352 --> 00:21:18.185
이게 무슨 얘기냐?

00:21:18.285 --> 00:21:19.871
그다음에 안 나왔죠?

00:21:19.971 --> 00:21:22.892
이런 거예요.

00:21:22.992 --> 00:21:27.466
민물고기라고 하면 민물과 고기가
합쳐진 거잖아요, 그렇죠?

00:21:27.566 --> 00:21:33.271
그러면 이 민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
민이라고 하는 게 접사예요, 접사.

00:21:33.371 --> 00:21:35.184
애는 어근이죠.

00:21:35.284 --> 00:21:37.934
그럼 애는 뭐가 되는
거냐면 파생어예요.

00:21:38.034 --> 00:21:40.718

파생어인데, 파생어는 하나의
뜻이 있잖아요, 그렇지요?

00:21:40.818 --> 00:21:42.640
민물이라는 단어가
하나 이루어진 거야.

00:21:42.740 --> 00:21:44.846
그다음에 고기와 결합된 거야,
고기와 결합된 거야.

00:21:44.946 --> 00:21:51.275
파생어가 직접 구성 성분인 고기와,
어근이잖아요, 애는 어근이잖아요.

00:21:51.375 --> 00:21:56.403
파생어가 직접 성분인 민물고기는
합성어가 되는 거죠, 결국은.

00:21:56.503 --> 00:22:03.487
다시, 파생어가 직접 구성 요소인
합성어가 되는 거죠, 민물고기는.

00:22:03.587 --> 00:22:06.730
그렇게 분석할 수
있다는 얘기입니다.

00:22:06.830 --> 00:22:11.520
그다음,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
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.

00:22:11.620 --> 00:22:15.058
첫째, 직접 구성
요소로 분석되는 말이

00:22:15.158 --> 00:22:18.381
실제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.

00:22:18.481 --> 00:22:20.938
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
분석해야 하는데.

00:22:21.038 --> 00:22:24.247
왜, 살얼다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.

00:22:24.347 --> 00:22:28.103
만약에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
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

00:22:28.203 --> 00:22:29.280
잘못된 분석이다.

00:22:29.380 --> 00:22:30.568
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

00:22:30.668 --> 00:22:32.048
그 구성 요소가 있는지 봐야죠.

00:22:32.148 --> 00:22:33.899
살얼이라는 단어가 있는지.

00:22:33.999 --> 00:22:35.862

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

00:22:35.962 --> 00:22:37.572

보세요.

00:22:37.672 --> 00:22:42.458

비웃음하고 코웃음은 분석이 달라요.

00:22:42.558 --> 00:22:45.908

비웃음은 비웃다와
음이 결합된 거예요.

00:22:46.008 --> 00:22:47.559

비웃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.

00:22:47.659 --> 00:22:50.668

그런데 여러분, 코웃음은 뭐냐면
코와 웃음이 결합한 거예요.

00:22:50.768 --> 00:22:52.696

코웃다라는 단어가 없잖아요.

00:22:52.796 --> 00:22:55.636

그렇게 구성 요소 분석을
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

00:22:55.736 --> 00:22:59.029

둘째,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
전체 구성 요소들과 의미가

00:22:59.129 --> 00:23:00.369

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.

00:23:00.469 --> 00:23:03.788

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
벽돌과 집으로 분석되죠.

00:23:03.888 --> 00:23:08.737

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
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알 수 없다.

00:23:08.837 --> 00:23:10.038

벽과 돌집.

00:23:10.138 --> 00:23:13.176

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
벽이 돌로 되어 있는 집,

00:23:13.276 --> 00:23:14.758

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.

00:23:14.858 --> 00:23:17.924

그러니까 구성 요소 분석의
방법이 나와 있죠.

00:23:18.024 --> 00:23:20.250

민물고기가 어떻게
분석되는지 알겠죠?

00:23:20.350 --> 00:23:23.184

긴 문장도 직접 구성
요소 분석을 통해서,

00:23:23.284 --> 00:23:25.619
문장 분석도 그 구조를
알 수 있는데.

00:23:25.719 --> 00:23:29.448
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,
서술어가 나타나므로

00:23:29.548 --> 00:23:32.967
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
주어와 서술어가 된다.

00:23:33.067 --> 00:23:35.158
주어와 서술어 분석이 된다.

00:23:35.258 --> 00:23:37.924
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
하지만, 주어의 필수 성분과

00:23:38.024 --> 00:23:39.512
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.

00:23:39.612 --> 00:23:43.679
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
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.

00:23:43.779 --> 00:23:46.859
내 동생은, 이게 먼저
분석이 되는 거고요.

00:23:46.959 --> 00:23:49.838
주어 다음에 나누어서 그
앞부분이 전부 다 주어부이고,

00:23:49.938 --> 00:23:51.305
나머지는 서술부예요.

00:23:51.405 --> 00:23:54.122
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그
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.

00:23:54.222 --> 00:23:57.160
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
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

00:23:57.260 --> 00:23:59.452
엄마의 칭찬과 많이
받았다고 나뉜다.

00:23:59.552 --> 00:24:02.515
또한 이 내 동생의 직접
구성 요소는 나와 동생인데,

00:24:02.615 --> 00:24:05.428
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
받는 말이 인접하면 두 요소는

00:24:05.528 --> 00:24:08.304

바로 층위의 말을 이루는
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.

00:24:08.404 --> 00:24:09.455
무슨 말이냐?

00:24:09.555 --> 00:24:10.401
선생님이 써드릴게요.

00:24:10.501 --> 00:24:11.709
지웁니다.

00:24:13.693 --> 00:24:16.636
써야지 여러분이
이해될 것 같아요.

00:24:16.736 --> 00:24:30.357
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
받는다는 문장이 있어요.

00:24:30.457 --> 00:24:32.907
그럼 어떻게 층이 나뉘어지냐면

00:24:33.007 --> 00:24:35.155
우선 주어부와 서술부로
나눌 수 있거든요.

00:24:35.255 --> 00:24:36.780
주어 다음에 빗금 쳐요.

00:24:36.880 --> 00:24:38.514
앞부분이 전부 다 주어부예요.

00:24:38.614 --> 00:24:39.775
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.

00:24:39.875 --> 00:24:42.741
이렇게 먼저 층이 나누어진다고,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24:42.841 --> 00:24:45.209
그러면 엄마의 칭찬을
많이 받는다고 하면

00:24:45.309 --> 00:24:46.469
그다음은 어디에서 나뉘질까요?

00:24:46.569 --> 00:24:47.918
여기에서 나뉘지겠죠, 우선은.

00:24:48.018 --> 00:24:50.201
엄마의 칭찬을, 왜?

00:24:50.301 --> 00:24:54.211
결국 칭찬을 받는 거니까 이게
마지막에 결국 만나야 되잖아.

00:24:54.311 --> 00:24:57.997
많이 받는다고, 이렇게 되는
거고, 이렇게 결합되는 거고,

00:24:58.097 --> 00:25:01.797

이게 이렇게 결합되는 게 바로 구성
요소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.

00:25:01.897 --> 00:25:06.064

그 말이 이렇게 길게
나와 있습니다.

00:25:06.164 --> 00:25:09.366

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
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

00:25:09.466 --> 00:25:13.811

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 관형사절
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

00:25:13.911 --> 00:25:17.579

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라고
하면 있다라는 서술어 앞이

00:25:17.679 --> 00:25:20.306

책이가 바로 이제 주어니까.

00:25:20.406 --> 00:25:23.539

문장 전체의 주어, 즉 가장
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

00:25:23.639 --> 00:25:28.422

언니가 찾던 책이, 이게
바로 주어가 된다는 거죠.

00:25:28.522 --> 00:25:29.815

되겠습니까?

00:25:29.915 --> 00:25:30.897

이해되시나요?

00:25:30.997 --> 00:25:32.310

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5:32.410 --> 00:25:36.090

1번,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
진행된 학습 활동이다.

00:25:36.190 --> 00:25:40.392

㉠~㉢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
것을 골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25:40.492 --> 00:25:44.927

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
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.

00:25:45.027 --> 00:25:47.994

즉, 다시 말하면 민 물고기
이게 아니라는 거죠.

00:25:48.094 --> 00:25:50.742

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
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.

00:25:50.842 --> 00:25:53.493

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
합성어인지 알겠어요.

00:25:53.593 --> 00:25:56.673

그러니까 민+물고기라고
하면 파생어인데,

00:25:56.773 --> 00:26:01.639

민물과 고기가 합쳐졌으니까
이거는 합성어가 되는 거죠.

00:26:01.739 --> 00:26:04.559

그럼 아래의 단어들도
한번 분석해 보자.

00:26:04.659 --> 00:26:07.443

이거 그냥 바로 분석하는
게 어떨까 싶은데요.

00:26:07.543 --> 00:26:08.755

가보겠습니다.

00:26:08.855 --> 00:26:10.218

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

00:26:10.318 --> 00:26:12.658

나들이옷은 어떻게
나누어질까요, 여러분?

00:26:12.758 --> 00:26:16.233

나들이와 옷으로
나누어지겠죠, 맞습니까?

00:26:16.333 --> 00:26:18.481

나들이와 옷이에요.

00:26:18.581 --> 00:26:22.014

그러면 나들이라고 하는 건
다시 분석이 됩니다.

00:26:22.114 --> 00:26:23.469

좀 어렵습니다.

00:26:23.569 --> 00:26:25.983

나들이는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.

00:26:26.083 --> 00:26:29.515

나다, 들다가 합쳐진 마지막에
이가 결합된 거거든요.

00:26:29.615 --> 00:26:32.221

그러면 이걸 바로 뭐냐면
파생어입니다, 여러분.

00:26:32.321 --> 00:26:36.095

파생어가 직접 구성 요소인
옷이 마지막에 결합됐잖아요.

00:26:36.195 --> 00:26:41.476

파생어가 직접 구성 요소인
전체는 합성어가 되는 거죠.

00:26:41.576 --> 00:26:42.574
됐어요?

00:26:42.674 --> 00:26:44.084
그럼 1번 선택지 볼까요?

00:26:44.184 --> 00:26:48.915
㉠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의
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가 아니라

00:26:49.015 --> 00:26:51.707
파생어인 합성어가 되는 거죠.

00:26:51.807 --> 00:26:52.834
왜?

00:26:52.934 --> 00:26:54.198
옷이 마지막에 결합됐으니까.

00:26:54.298 --> 00:26:56.538
어떤 게 마지막에
결합됐는지 보시면 되죠.

00:26:56.638 --> 00:26:58.079
눈웃음은 이게 어렵죠.

00:26:58.179 --> 00:26:59.813
눈웃다라는 단어가 있어요?

00:26:59.913 --> 00:27:00.874
없죠.

00:27:00.974 --> 00:27:02.110
눈과 웃음이죠.

00:27:02.210 --> 00:27:04.562
그러면 웃음이라고 하는 게
웃다에 음이 붙었으니까

00:27:04.662 --> 00:27:06.045
애가 파생어란 말이야.

00:27:06.145 --> 00:27:12.059
파생어를 구성 요소로 하고
있는 전체 합성어죠.

00:27:12.159 --> 00:27:13.793
2번 선택지 볼까요?

00:27:13.893 --> 00:27:19.994
직접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
파생어인 합성어이다.

00:27:20.094 --> 00:27:21.500
정답 2번이네요, 그렇죠?

00:27:21.600 --> 00:27:24.228
파생어인 합성어니까
정답 2번이 정답이죠.

00:27:24.328 --> 00:27:25.743

이해될까요, 여러분?

00:27:25.843 --> 00:27:28.023

뭐하고 뭐가 결합됐는지
확인하셔야 돼요.

00:27:28.123 --> 00:27:30.896

마지막에 뭐가 결합됐냐면
눈이 결합됐잖아요.

00:27:30.996 --> 00:27:33.231

드높이다라고 하면, 보세요.

00:27:33.331 --> 00:27:38.648

드높다라는 단어도 있고, 높이다에
드를 높일 수도 있지만,

00:27:38.748 --> 00:27:41.649

여기에서 드높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
드높다라는 단어가 먼저죠.

00:27:41.749 --> 00:27:43.406

드높다라는 단어가 먼저예요.

00:27:43.506 --> 00:27:46.081

그러면 드높다라고 할
때 드는 바로 뭐야?

00:27:46.181 --> 00:27:47.070

접사거든요.

00:27:47.170 --> 00:27:51.378

드높+그다음에 이다, 이렇게
되더라도 상관없어요.

00:27:51.478 --> 00:27:53.170

거꾸로 해도 상관없더라고요.

00:27:53.270 --> 00:27:57.907

파생어인 마지막에 이가 들어갔으니까
이도 역시 파생 접사거든요.

00:27:58.007 --> 00:28:00.489

파생어인 파생어이다
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28:00.589 --> 00:28:03.507

드높이다라고 해도, 드+높이다라고
해도 상관없어요.

00:28:03.607 --> 00:28:05.073

높이다 파생어죠.

00:28:05.173 --> 00:28:07.014

이가 접사가 들어간 파생어잖아요.

00:28:07.114 --> 00:28:09.313

이 드가 마지막에 접사가 붙었으니까

00:28:09.413 --> 00:28:11.255

파생어를 구성 요소로
하는 파생어이다.

00:28:11.355 --> 00:28:14.969

㉔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
파생어인 파생어입니다.

00:28:15.069 --> 00:28:17.021

틀렸어요.

00:28:17.121 --> 00:28:20.357

집집이라고 하면 집이라는
단어가 있어요, 여러분?

00:28:20.457 --> 00:28:22.089

집이라는 단어가 없죠?

00:28:22.189 --> 00:28:23.214

집집은 되죠.

00:28:23.314 --> 00:28:25.680

명사끼리 결합하는 건 가능하잖아요.

00:28:25.780 --> 00:28:28.087

그러면 집집이니까 이건 바로 뭐냐?

00:28:28.187 --> 00:28:29.611

합성어죠.

00:28:29.711 --> 00:28:30.970

명사, 명사니까 어근이니까.

00:28:31.070 --> 00:28:34.965

합성어를 구성 요소로 하는 마지막에
이가 결합했으니까 파생어죠.

00:28:35.065 --> 00:28:40.961

4번 선택지, 직접 구성 요소 하나가
합성어인 파생어이다 이렇게 되겠죠.

00:28:41.061 --> 00:28:44.296

놀이터는 놀이와 터죠?

00:28:44.396 --> 00:28:45.823

그러니까 애는 뭐야?

00:28:45.923 --> 00:28:46.916

파생어죠.

00:28:47.016 --> 00:28:49.031

놀다에 이가 붙었으니까 접사잖아요.

00:28:49.131 --> 00:28:53.751

직접 구성 요소가 파생어인
터는 명사니까 합성어죠.

00:28:53.851 --> 00:28:55.234

마지막 5번 선택지.

00:28:55.334 --> 00:28:58.353

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

파생어인 합성어이다.

00:28:58.453 --> 00:29:01.036
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
정답이 됩니다.

00:29:01.136 --> 00:29:02.699
이해 되셨습니까?

00:29:02.799 --> 00:29:06.206
아주 어려웠던 문제였어요.

00:29:06.306 --> 00:29:07.672
문법 싫어하지 마세요.

00:29:07.772 --> 00:29:11.209
부탁드립니다.

00:29:11.309 --> 00:29:16.607
그다음에 2번 보면 윗글의
관점에서 ㉠~㉡을 분석한 것으로

00:29:16.707 --> 00:29:18.573
옳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얘기했는데.

00:29:18.673 --> 00:29:23.156
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
했는데, 어렵더라고요.

00:29:23.256 --> 00:29:25.148
이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.

00:29:25.248 --> 00:29:29.144
이게 우선 뭐가 되어야
되냐면, 애들아.

00:29:29.244 --> 00:29:31.423
절이라고 하는 걸 찾을
수 있어야 됩니다.

00:29:31.523 --> 00:29:33.067
우선 1번 보자.

00:29:33.167 --> 00:29:35.162
지히는 목소리가 곱다.

00:29:35.262 --> 00:29:39.164
이게 뭐냐면 곱다라고
하는 단어는 여러분,

00:29:39.264 --> 00:29:43.931
곱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선
첫 번째는 뭐냐면 목소리가 곱다예요.

00:29:44.031 --> 00:29:47.061
이게 주어이고, 이게 서술어거든요.

00:29:47.161 --> 00:29:53.508
그런데 이 주어, 서술어가 만나서
전체 지히는이라는 주어에

00:29:53.608 --> 00:29:56.613
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에요.

00:29:56.713 --> 00:29:59.689
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
지희는, 이게 전체 주어이고

00:29:59.789 --> 00:30:02.385
목소리가 끊다가
서술어가 되는 겁니다.

00:30:02.485 --> 00:30:03.776
서술절이니깐요.

00:30:03.876 --> 00:30:08.467
1번 선택지, 지희는
목소리가 끊다로 분석되겠군.

00:30:08.567 --> 00:30:09.888
맞죠.

00:30:09.988 --> 00:30:11.932
2번을 볼까요?

00:30:12.032 --> 00:30:14.365
2번은 전체 서술어가 들었잖아요.

00:30:14.465 --> 00:30:16.912
먼저 전체 서술어를 봐야죠.

00:30:17.012 --> 00:30:17.998
누가 들었어?

00:30:18.098 --> 00:30:19.602
주어가 생략되어 있는
겁니다, 주어가.

00:30:19.702 --> 00:30:20.919
전체 주어가.

00:30:21.019 --> 00:30:23.149
나는이라는 주어가
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야.

00:30:23.249 --> 00:30:25.308
나는이라는 주어가
생략되어 있는 거죠.

00:30:25.408 --> 00:30:29.779
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라고 하면
도착했다는 서술어는 소포가,

00:30:29.879 --> 00:30:32.652
이게 이렇게 두 개가
뺏어지겠죠, 그렇죠?

00:30:32.752 --> 00:30:35.666
소포가 도착했다, 이게
하나의 문장 구조이고.

00:30:35.766 --> 00:30:38.040

그다음에 들었잖아요.

00:30:38.140 --> 00:30:41.511

그러니까 2번 선택지,
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.

00:30:41.611 --> 00:30:42.818

소포가 귀가했어요?

00:30:42.918 --> 00:30:44.212

소포가 도착했다.

00:30:44.312 --> 00:30:46.444

그다음에 들었다,
이걸 들었다가 되죠.

00:30:46.544 --> 00:30:49.093

그러니까 정답 2번이 정답이에요.

00:30:49.193 --> 00:30:53.348

㉠ 보면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
주었다고 하면 누가 줬어요?

00:30:53.448 --> 00:30:54.670

동수가 준 거잖아요.

00:30:54.770 --> 00:30:57.372

주다의 주어는 동수니까.

00:30:57.472 --> 00:30:58.485

됐어요?

00:30:58.585 --> 00:31:00.087

선물을 준 거고,
누구한테 준 거야?

00:31:00.187 --> 00:31:01.285

미애한테 준 거죠.

00:31:01.385 --> 00:31:04.251

3번은 동수가 미애에게
선물 주었다.

00:31:04.351 --> 00:31:05.275

맞잖아요.

00:31:05.375 --> 00:31:09.972

동수가 전체 주어부, 서술부라고
해서 동수가까지가 주어니까

00:31:10.072 --> 00:31:12.455

앞에 부분이 전부 다
주어부가 되는 거죠.

00:31:12.555 --> 00:31:15.085

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.

00:31:15.185 --> 00:31:17.792

그가 밝혀진 거죠.

00:31:17.892 --> 00:31:22.019

그러니까 주어가 바로 뭐냐면
그가, 이게 주어가 되겠고.

00:31:22.119 --> 00:31:24.209

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.

00:31:24.309 --> 00:31:25.790

4번 선택지 볼까?

00:31:25.890 --> 00:31:30.699

그가 익명의 기부자이다,
이렇게 되죠.

00:31:30.799 --> 00:31:31.679

미안합니다.

00:31:31.779 --> 00:31:33.110

그가 익명의 기부자이다.

00:31:33.210 --> 00:31:34.211

이게 어렵네요.

00:31:34.311 --> 00:31:35.579

그가 ~이다.

00:31:35.679 --> 00:31:37.643

이게 뭐냐면 서술격 조사예요.

00:31:37.743 --> 00:31:42.176

서술격 조사니까 서술격 조사 이다에
ㅁ이 붙어서 명사절이 된 거예요.

00:31:42.276 --> 00:31:43.923

어려웠다, 이거.

00:31:44.023 --> 00:31:48.464

그래서 ~이 밝혀지다라고 했으니까
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.

00:31:48.564 --> 00:31:50.220

제가 지금 착각했네요.

00:31:50.320 --> 00:31:52.835

그가 밝혀졌다가 말이 안
되잖아요, 그렇지?

00:31:52.935 --> 00:31:56.055

그가 익명의 기부자이다,
이렇게 된 거고.

00:31:56.155 --> 00:31:59.110

이게 하나가 ㅁ이 붙으면서
명사절이 된 거고.

00:31:59.210 --> 00:32:02.084

이가 붙으면서 주어 역할을
하게 되는 거니까

00:32:02.184 --> 00:32:04.086

~이 밝혀지다라고 되어 있죠.

00:32:04.186 --> 00:32:06.719
그러니까 4번 선택지도 적절하죠.

00:32:06.819 --> 00:32:09.383
인생은 짧고 예술은
길다라는 말은 명언이다.

00:32:09.483 --> 00:32:10.505
뭐가 명언이에요?

00:32:10.605 --> 00:32:11.921
이 말이 명언인 거잖아.

00:32:12.021 --> 00:32:15.114
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
길다라는 말은 5번 선택지,

00:32:15.214 --> 00:32:18.384
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
말은과 명언이다라고 분석된다.

00:32:18.484 --> 00:32:21.955
이건 뭘 찾는 거냐면 주어부와
서술부를 찾는 겁니다.

00:32:22.055 --> 00:32:24.302
서술어를 먼저 찾으시고요.

00:32:24.402 --> 00:32:27.204
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가
뭘지를 찾으셔야지만

00:32:27.304 --> 00:32:29.213
연결 관계가 뚜렷해집니다.

00:32:29.313 --> 00:32:33.165
그렇게 찾는 문제였어요.

00:32:33.265 --> 00:32:35.386
다음 내용 문제 확인했고요.

00:32:35.486 --> 00:32:38.839
유형 연습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?

00:32:38.939 --> 00:32:42.211
1번 문제 보겠습니다, 1번.

00:32:42.311 --> 00:32:48.782
㉠, ㉡이 모두 사용된 문장을
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.

00:32:48.882 --> 00:32:50.213
㉠이 뭐죠?

00:32:50.313 --> 00:32:52.323
정답 확인하죠.

00:32:52.423 --> 00:32:56.716
우리말에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
종결 어미, 조사 등을 통해서

00:32:56.816 --> 00:33:01.010
높임법을 표현하지만, 어휘를 통해서
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00:33:01.110 --> 00:33:03.529
이걸 선생님이 아까 특수
어휘라고 생각했어요.

00:33:03.629 --> 00:33:06.176
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
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.

00:33:06.276 --> 00:33:07.524
주체를 높이는 표현.

00:33:07.624 --> 00:33:11.824
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되냐면
주체 높임이 뭔지 확인해야죠.

00:33:11.924 --> 00:33:17.068
그러니까 주체 높임은 주어가 높은
사람일 때 나타나는 거니까.

00:33:17.168 --> 00:33:18.606
객체를 높이는 것, 드리다.

00:33:18.706 --> 00:33:22.975
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,
선생이라는 말에 님을 붙여서

00:33:23.075 --> 00:33:24.357
직접 높인 거죠.

00:33:24.457 --> 00:33:26.143
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
것을 높이는 명사.

00:33:26.243 --> 00:33:27.751
진지, ㉠입니다.

00:33:27.851 --> 00:33:29.471
㉠은 주체 높임.

00:33:29.571 --> 00:33:31.360
㉠, ㉡이 모두 사용된
걸 찾아야죠.

00:33:31.460 --> 00:33:33.321
그러면 뭘 찾아야 돼?

00:33:33.421 --> 00:33:39.259
주체 높임도 찾아야 되고,
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용언.

00:33:39.359 --> 00:33:44.005
그다음에 인물과 관련된 명사.

00:33:44.105 --> 00:33:45.509
직접 높이는 거예요.

00:33:45.609 --> 00:33:47.187
되게 많을 것 같다, 그렇지요?

00:33:47.287 --> 00:33:48.388
가보겠습니다.

00:33:48.488 --> 00:33:51.004
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
기억하고 있다.

00:33:51.104 --> 00:33:54.102
우선 높은 단어가 바로 성함이라는
단어가 있는 것 같죠.

00:33:54.202 --> 00:33:57.776
그 성함이라는 단어는 이름인데,
이름을 성함이라고 쓰면

00:33:57.876 --> 00:33:59.866
좀 더 높은 표현이 되잖아요.

00:33:59.966 --> 00:34:03.258
그러니까 성함은 누구를 높이는
거냐면 높여야 될 인물을

00:34:03.358 --> 00:34:07.394
높이는 거니까 이거는 ㉠에는
해당될 것 같습니다, 그렇지요?

00:34:07.494 --> 00:34:09.189
㉠에는 해당됩니다.

00:34:09.289 --> 00:34:11.531
그러니까 어휘를 통해서 높임
표현된 거는 바로 성함이니까

00:34:11.631 --> 00:34:15.344
성함은 그분과 관련된 거니까 맞죠.

00:34:15.444 --> 00:34:18.334
누나는 여쭙는 것이 있다며
할머니 댁에 갔다.

00:34:18.434 --> 00:34:20.135
뭐가 바뀌었습니까?

00:34:20.235 --> 00:34:24.402
여쭙다, 할머니 댁, 이런
단어들이 바로 높임을 나타내는

00:34:24.502 --> 00:34:26.294
단어가 될 수 있죠.

00:34:26.394 --> 00:34:30.832
그런데 여쭙다라고 하는 것은
주체가 높여지는 거니,

00:34:30.932 --> 00:34:32.960
객체가 높여지는 거니, 애들아?

00:34:33.060 --> 00:34:34.008

문장을 만들어 보세요.

00:34:34.108 --> 00:34:37.802

할아버지께서 여쭙다가 아니라
할아버지께 여쭙다잖아요.

00:34:37.902 --> 00:34:42.393

그러니까 할아버지께 여쭙다니까
객체 높임일 때 쓰는 거죠.

00:34:42.493 --> 00:34:46.981

친구에게 물어보다, 할아버지께
여쭙다니까, 그렇죠?

00:34:47.081 --> 00:34:48.430

누구를 높이는 거야?

00:34:48.530 --> 00:34:50.507

객체 높임이에요, 객체.

00:34:50.607 --> 00:34:53.427

이거는 할머니, 높여야 되는
할머니를 직접 높여주는 거 맞죠.

00:34:53.527 --> 00:34:54.542

그런데 애는 뭐가 틀렸어?

00:34:54.642 --> 00:34:56.548

객체니까 틀린 거죠.

00:34:56.648 --> 00:34:59.810

연세가 많으신, 연세
이런 단어들 나왔죠.

00:34:59.910 --> 00:35:03.418

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
잡수신다, 이런 말 나왔죠.

00:35:03.518 --> 00:35:10.995

그럼 우선은 연세가 많으신
할머니께서는, 할머니께서는.

00:35:11.095 --> 00:35:12.033

보세요.

00:35:12.133 --> 00:35:14.590

께서는이라고 했으니까
주체 높임법이 있어요.

00:35:14.690 --> 00:35:17.090

주체 높임 나타내는
잡수신다, 맞죠.

00:35:17.190 --> 00:35:20.428

먹다가 아니고, 홍시를 먹다가
아니고 잡수신다, 맞네요.

00:35:20.528 --> 00:35:23.060

할머니를 직접 높이는, 할머니
나이가 많으신이 아니라

00:35:23.160 --> 00:35:26.886
연세가 많으신이니까 높여야 할 인물과
관련된 것을 높이는 거 맞죠.

00:35:26.986 --> 00:35:28.963
정답 3번이네요.

00:35:29.063 --> 00:35:32.853
그다음에 모시고라는 단어가
있고 여행을 떠났다.

00:35:32.953 --> 00:35:33.948
모시고 하나밖에 없죠.

00:35:34.048 --> 00:35:34.970
이거는 뭐야?

00:35:35.070 --> 00:35:38.463
부모님을 모시고니까
이거는 객체 높임이죠.

00:35:38.563 --> 00:35:43.118
어머니께서는 주체 높임이고,
몹시 피곤하셨는지, 잘 보세요.

00:35:43.218 --> 00:35:49.089
피곤하셨는지라고 하면 피곤하다라는
말에 시가 들어간 거예요, 여러분.

00:35:49.189 --> 00:35:53.136
주체 높임 선어말
어미가 들어간 거야.

00:35:53.236 --> 00:35:56.506
거실에서 주무신다라고 하는 게
특수 어휘예요, 여러분.

00:35:56.606 --> 00:35:58.196
봐요.

00:35:58.296 --> 00:36:06.624
주무시다하고 피곤하시다하고
뭐가 달라요, 여러분?

00:36:06.724 --> 00:36:09.632
애는 피곤하다에 시가 들어간 거죠.

00:36:09.732 --> 00:36:11.929
그런데 애는 주무다라는
말에 시가 들어간,

00:36:12.029 --> 00:36:13.581
원래 주무다라는 단어가 있니?

00:36:13.681 --> 00:36:14.733
없죠.

00:36:14.833 --> 00:36:16.424
주무다에 시가 들어간
게 아니잖아요.

00:36:16.524 --> 00:36:18.238

그러니까 이 주무시다는
특수 어휘가 되는 거고,

00:36:18.338 --> 00:36:23.250

피곤하시다 할 때 시는 주체 높임
선어말 어미가 들어간 거예요.

00:36:23.350 --> 00:36:25.572

차이점 알겠니, 애들아?

00:36:25.672 --> 00:36:26.932

이해되겠어요, 여러분?

00:36:27.032 --> 00:36:31.583

가시다라고 하면 가다에 시라고
하는 어미가 들어간 거죠.

00:36:31.683 --> 00:36:34.335

시라고 하는 선어말
어미가 들어간 거죠.

00:36:34.435 --> 00:36:38.309

피곤하시다하고 주무시다 서로 차이점
아셔야 됩니다, 아시겠죠?

00:36:38.409 --> 00:36:40.582

정답은 3번.

00:36:40.682 --> 00:36:43.948

넘어갈까요?

00:36:44.048 --> 00:36:47.194

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
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을

00:36:47.294 --> 00:36:49.354

찾으라고 얘기했는데.

00:36:49.454 --> 00:36:51.205

문제가 좀 길어 보입니다.

00:36:51.305 --> 00:36:56.783

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
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

00:36:56.883 --> 00:36:59.239

특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
문장을 사동이라고 합니다.

00:36:59.339 --> 00:37:01.020

시키는 문장이니까요.

00:37:01.120 --> 00:37:03.730

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
결합한 사동사가 있고요.

00:37:03.830 --> 00:37:07.434

어간에 ~게 하다가 결합된
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.

00:37:07.534 --> 00:37:09.263

옳은 걸 찾으라는 거구나.

00:37:09.363 --> 00:37:11.611

여기 밑에 예문이
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.

00:37:11.711 --> 00:37:14.223

밑에 선택지 보고
올라가는 게 맞겠습니다.

00:37:14.323 --> 00:37:18.252

㉠, ㉡을 보니까, ㉠,
㉡ 보면 되죠, 뭐.

00:37:18.352 --> 00:37:20.427

보라는 대로 눈으로
따라가면 되잖아요.

00:37:20.527 --> 00:37:25.031

A의 주어는 동생이, 동생이.

00:37:25.131 --> 00:37:31.436

주어는 C에서 동일한
문장 성분으로 나타난다.

00:37:31.536 --> 00:37:33.921

동생이, 동생을이잖아요.

00:37:34.021 --> 00:37:35.643

동생에게잖아요.

00:37:35.743 --> 00:37:36.582

동일한 게 아니죠.

00:37:36.682 --> 00:37:37.869

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, 그렇지요?

00:37:37.969 --> 00:37:39.823

목적어, 부사어니까 틀렸네.

00:37:39.923 --> 00:37:41.396

2번 볼까요?

00:37:41.496 --> 00:37:44.159

㉠, ㉢을 보니까, ㉠,
㉢ 보면 되겠네요.

00:37:44.259 --> 00:37:48.526

㉠, ㉢을 보니까 A가 B로
바뀌면서 서술어 자릿수가 늘어났다.

00:37:48.626 --> 00:37:49.927

보세요.

00:37:50.027 --> 00:37:53.519

여기에서 보니까
숨는다잖아요, 숨는다.

00:37:53.619 --> 00:37:54.654

몇 자리예요?

00:37:54.754 --> 00:37:56.093

한 자리죠, ~이 숨는다니까.

00:37:56.193 --> 00:37:58.580

온도가 낮다, 이거 한 자리죠.

00:37:58.680 --> 00:38:01.715

그런데 ㉠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

00:38:01.815 --> 00:38:04.778

㉠을 보니까 숨게 하다니까, 봐요.

00:38:04.878 --> 00:38:07.829

~가 ~을 하니까 이걸
두 자리가 되죠.

00:38:07.929 --> 00:38:10.672

목적어가 생겼으니까 두 자리잖아요.

00:38:10.772 --> 00:38:13.745

낮게 하다라고 하면 누나가 ~를
낮게 하니까 두 자리네요.

00:38:13.845 --> 00:38:17.518

문장 성분이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
서술어 자릿수 늘어났죠.

00:38:17.618 --> 00:38:18.979

정답 2번이네요, 그렇죠?

00:38:19.079 --> 00:38:22.246

3번, 4번 가보겠습니다.

00:38:22.346 --> 00:38:23.842

3번 볼까요?

00:38:23.942 --> 00:38:26.565

㉡과 ㉠을 보니까,
㉡, ㉠ 보면 되죠.

00:38:26.665 --> 00:38:32.661

㉡, ㉠을 보니까 A가 B로
바뀌면서 겹문장이 된다고 했는데.

00:38:32.761 --> 00:38:35.528

동생이 밥을 먹는다,
서술어 하나죠?

00:38:35.628 --> 00:38:36.897

낮다, 서술어 하나죠?

00:38:36.997 --> 00:38:38.597

밥을 먹인다, 서술어 하나잖아요.

00:38:38.697 --> 00:38:40.736

실내 온도를 낮춘다,
서술어 하나잖아요.

00:38:40.836 --> 00:38:42.216

겹문장 되는 게 아닙니다.

00:38:42.316 --> 00:38:43.966

접문장은 주어+서술어 관계가
두 번 나타나야 되는데,

00:38:44.066 --> 00:38:47.839

서술어 둘 다 하나니까 이거는
접문장이 되는 거 둘 다 아니죠.

00:38:47.939 --> 00:38:49.279

틀렸네요.

00:38:49.379 --> 00:38:51.973

㉠과 ㉡을 보니까,
㉠, ㉡ 보면 되죠.

00:38:52.073 --> 00:38:54.905

㉠, ㉡ 보니까 A의
서술어가 타동사이면

00:38:55.005 --> 00:38:57.756

대응하는 사동사가
없군이라고 했는데.

00:38:57.856 --> 00:38:59.091

타동사가 뭐예요?

00:38:59.191 --> 00:38:59.953

목적어 있는 거죠.

00:39:00.053 --> 00:39:01.106

애네요, 먹는다.

00:39:01.206 --> 00:39:02.330

타동사, 애네요.

00:39:02.430 --> 00:39:03.998

공을 찬다, 타동사.

00:39:04.098 --> 00:39:05.356

둘 다 타동사네요.

00:39:05.456 --> 00:39:07.670

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했는데.

00:39:07.770 --> 00:39:09.110

여기에서 먹게 하다.

00:39:09.210 --> 00:39:13.047

사동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동사는
이, 히, 리, 기, 우, 구, 추

00:39:13.147 --> 00:39:15.049

접사가 들어가면 사동사라고
얘기했잖아요.

00:39:15.149 --> 00:39:18.215

~게 하다, 사동사 안 들어갔네.

00:39:22.889 --> 00:39:26.742

여기구나, 여기구나, 그렇죠?

00:39:26.842 --> 00:39:29.485

여기에서 사동사가 없군이라고 했는데, 여기구나.

00:39:29.585 --> 00:39:31.139

해당 사례 없음이니까 이걸 없네요.

00:39:31.239 --> 00:39:32.739

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야?

00:39:32.839 --> 00:39:35.507

먹인다고 하는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 되니까

00:39:35.607 --> 00:39:37.607

㉠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.

00:39:37.707 --> 00:39:40.764

여기는 해당 사항 없지만, 여기는 해당 사항 있잖아요, 그렇죠?

00:39:40.864 --> 00:39:44.154

그러니까 4번도 역시 하나가 틀렸네요.

00:39:44.254 --> 00:39:48.729

㉡과 ㉢을 보니까 A에 서술어가 형용사면, ㉡, ㉢ 이거죠.

00:39:48.829 --> 00:39:53.737

형용사면, 형용사는 애가 형용사예요.

00:39:53.837 --> 00:39:57.700

그럼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동사, 형용사 구별할 수 있니?

00:39:57.800 --> 00:39:59.426

이런 것도 숨겨져 있어요.

00:39:59.526 --> 00:40:01.780

찬다, ㄴ 다 들어갔으니까 동사고요.

00:40:01.880 --> 00:40:05.368

낮다 같은 경우는 는다, ㄴ 다 못 붙이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.

00:40:05.468 --> 00:40:07.183

형용사야.

00:40:07.283 --> 00:40:09.215

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 거.

00:40:09.315 --> 00:40:09.900

못 만들었어?

00:40:10.000 --> 00:40:10.638

여기 만들었네.

00:40:10.738 --> 00:40:12.305
사동문 됐잖아요, 낮춘다 됐잖아요.

00:40:12.405 --> 00:40:14.847
그러니까 5번 선택지도
틀렸네요, 그렇지요?

00:40:14.947 --> 00:40:15.967
됐니?

00:40:16.067 --> 00:40:18.920
이렇게 하나하나 확인만
하면 되는데.

00:40:19.020 --> 00:40:21.485
중간에 숨겨진 문법적인
요소가 있어요.

00:40:21.585 --> 00:40:22.363
될데?

00:40:22.463 --> 00:40:25.049
동사,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.

00:40:25.149 --> 00:40:26.898
타동사가 뭔지 아는 방법.

00:40:26.998 --> 00:40:31.027
타동사가 뭔지, 그 개념들이 들어가
있어야 쉽게 풀리는 겁니다.

00:40:31.127 --> 00:40:33.156
3번을 볼까요?

00:40:33.256 --> 00:40:36.176
보기를 바탕으로 동사의 의미를
나타내는 연결 어미 ~으면서와

00:40:36.276 --> 00:40:40.928
~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.

00:40:41.028 --> 00:40:44.335
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,
췌으면서 노래를 불렀다.

00:40:44.435 --> 00:40:45.922
이건 안 된다는 거니까.

00:40:46.022 --> 00:40:47.609
나서자는 되지만,
나섰자는 안 된다.

00:40:47.709 --> 00:40:49.733
과거형이 안 되는구나,
이걸 몰라도 돼요.

00:40:49.833 --> 00:40:51.736
선택지에서 보고 올라가면 됩니다.

00:40:51.836 --> 00:40:52.945

가볼게요.

00:40:53.045 --> 00:40:55.837

1번, ㄱ과 ㄴ을 보니까,
ㄱ, ㄴ 볼까요?

00:40:55.937 --> 00:41:01.508

~면서와 ~자는,
~면서이고, ~자잖아요.

00:41:01.608 --> 00:41:04.381

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
함께 쓰일 수 없다.

00:41:04.481 --> 00:41:06.198

과거 시제 썼는데 안
됐잖아요, 둘 다.

00:41:06.298 --> 00:41:07.522

그러니까 1번 선택지 적절하네요.

00:41:07.622 --> 00:41:09.746

1번 지우고.

00:41:09.846 --> 00:41:17.536

ㄱ, ㄴ과 ㅁ을 보니까 ~면서는
~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

00:41:17.636 --> 00:41:19.343

어울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.

00:41:19.443 --> 00:41:20.495

~면서는 뭐야?

00:41:20.595 --> 00:41:23.838

ㄱ, ㄴ과 ㅁ을 보래요,
ㄱ, ㄴ, ㅁ을 보셔야죠.

00:41:23.938 --> 00:41:29.440

~면서는 ~자와 달리 다양한
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있다.

00:41:29.540 --> 00:41:30.390

뭔데?

00:41:30.490 --> 00:41:39.603

치면서, 나서자 이걸 되고, ㅁ 보면
빵을 먹으면서, 먹자 공부해라.

00:41:39.703 --> 00:41:47.505

그런데 먹으면서 공부해라 되고,
공부하자 되고, 공부할래 다 되죠,

00:41:47.605 --> 00:41:48.989

먹으면서는.

00:41:49.089 --> 00:41:51.503

그런데 먹자는 이게
안 되는 거잖아요.

00:41:51.603 --> 00:41:56.003

그러니까 ~면서는 ~자와 달리
다양한 문장과 어울릴 수 있죠.

00:41:56.103 --> 00:41:57.896
이거네요.

00:41:57.996 --> 00:42:02.515
먹으면서 공부해라, 공부하자,
공부할래는 되지만,

00:42:02.615 --> 00:42:06.944
먹자, 빵 먹자 공부해라, 공부하자,
공부할래는 안 되잖아요.

00:42:07.044 --> 00:42:08.652
여기 이런 표시가 있으니까.

00:42:08.752 --> 00:42:13.358
그러니까 2번 선택지 다양한 문장
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요 아니라

00:42:13.458 --> 00:42:14.363
있군요네요,

00:42:14.463 --> 00:42:15.375
한 곳 차이네요.

00:42:15.475 --> 00:42:17.608
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.

00:42:17.708 --> 00:42:18.793
3번을 가볼까요?

00:42:18.893 --> 00:42:19.886
3번 선택지.

00:42:19.986 --> 00:42:23.693
ㄴ과 ㄷ을 보니까 ~자로 연결된
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졌다.

00:42:23.793 --> 00:42:26.525
ㄴ과 ㄷ을 보니까,
ㄴ, ㄷ 볼까요?

00:42:26.625 --> 00:42:27.378
동수가 집을.

00:42:27.478 --> 00:42:31.040
동수, 비가, 주어 달라졌죠.

00:42:31.140 --> 00:42:34.040
동수가 집을 나서자
동수는 학교에 갔다.

00:42:34.140 --> 00:42:35.456
이때는 안 되잖아요, 그렇지?

00:42:35.556 --> 00:42:38.001
주어가 달라져야지
가능하다는 거 맞죠.

00:42:38.101 --> 00:42:41.012
큰을 보니까 ~으면서는 ~자와
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,

00:42:41.112 --> 00:42:44.862
~면서는 큰을 보니까, 이거죠.

00:42:44.962 --> 00:42:47.794
상냥하다가 형용사인
결 어떻게 알아요?

00:42:47.894 --> 00:42:48.926
는다, ㄴ 다 붙이라니까.

00:42:49.026 --> 00:42:50.509
상냥한다, 안 되잖아요.

00:42:50.609 --> 00:42:53.450
그러니까 하면서 상냥하다는
형용사인데 되잖아요.

00:42:53.550 --> 00:42:55.110
상냥하자 안 되죠.

00:42:55.210 --> 00:42:59.002
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
의미를 모두 나타낸다.

00:42:59.102 --> 00:43:01.884
상냥하면서 차분하다.

00:43:01.984 --> 00:43:05.476
상냥하기도 하고 차분하기도
한 거니까 동시와 나열.

00:43:05.576 --> 00:43:07.458
의미가 되는 거죠, 큰은.

00:43:07.558 --> 00:43:09.304
그러니까 4번 선택지도 적절하네요.

00:43:09.404 --> 00:43:12.003
비을 보니까 ~면서가
부정 표현과 어울리면

00:43:12.103 --> 00:43:14.231
동시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
행위를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.

00:43:14.331 --> 00:43:18.436
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
텔레비전을 켜 놓았다.

00:43:18.536 --> 00:43:20.081
안 보는 거잖아.

00:43:20.181 --> 00:43:23.119
그러니까 동시의 의미가 아니라 그
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한다.

00:43:23.219 --> 00:43:24.791

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거죠.

00:43:24.891 --> 00:43:27.707
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.

00:43:27.807 --> 00:43:32.839
이런 문제는 좀 귀찮게 하는
문제이고, 틀리라고 없다 대신

00:43:32.939 --> 00:43:36.223
있군이 맞는 그런 한 곳 차이로
이렇게 문제가 답이 나오는 거니까

00:43:36.323 --> 00:43:39.192
수능 문제였네요.

00:43:39.292 --> 00:43:42.331
㉠에 들어갈 말로 가장
적절한 거 찾아라.

00:43:42.431 --> 00:43:46.814
확실한 사실은 지금까지 성실하게
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은

00:43:46.914 --> 00:43:49.484
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
잘못된 문장이다.

00:43:49.584 --> 00:43:54.048
확실한 사실은 지금까지
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다,

00:43:54.148 --> 00:43:55.501
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.

00:43:55.601 --> 00:43:58.267
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
문장의 예와 똑같은 걸 찾아라.

00:43:58.367 --> 00:44:00.753
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?

00:44:00.853 --> 00:44:02.058
볼게요.

00:44:02.158 --> 00:44:05.492
회원들은 상품 구매를
싸게, 이거는 뭐예요?

00:44:05.592 --> 00:44:07.042
상품 구매를 구입할 수 있었다.

00:44:07.142 --> 00:44:09.356
이거는 중복된 표현이
잘못된 겁니다, 여러분.

00:44:09.456 --> 00:44:11.922
중복된 표현이 잘못된 거죠.

00:44:12.022 --> 00:44:14.725
그다음에 구매를 어떻게?

00:44:14.825 --> 00:44:18.039
상품 구매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
게 아니라 할 수 있었다.

00:44:18.139 --> 00:44:20.628
주어, 서술어 호응 관계가
틀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.

00:44:20.728 --> 00:44:22.951
이 글의 특징은, 주어고요.

00:44:23.051 --> 00:44:24.502
정답 2번이네요.

00:44:24.602 --> 00:44:27.541
특징은 길이가 짧지만
인상은 강하다는 것이다.

00:44:27.641 --> 00:44:31.850
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
정답이 2번이 정답이죠.

00:44:31.950 --> 00:44:36.183
아들의 성공 소식은 여간한, 이걸
뭐냐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인데,

00:44:36.283 --> 00:44:38.185
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
이렇게 써야 돼요.

00:44:38.285 --> 00:44:40.601
여간은 ~아니다 이렇게 쓰거든요.

00:44:40.701 --> 00:44:44.785
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,
연료 효율은 높여주지만

00:44:44.885 --> 00:44:47.123
유해 물질을 높이면 안 되잖아요.

00:44:47.223 --> 00:44:48.254
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

00:44:48.354 --> 00:44:50.809
유해 물질을 없애주고
서술어가 부당하게

00:44:50.909 --> 00:44:53.501
생략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.

00:44:53.601 --> 00:44:56.802
그는 자신의 행복한
마음을 형언할 방법을,

00:44:56.902 --> 00:44:58.375
형언할 방법 이거 어떻게 써요?

00:44:58.475 --> 00:45:00.355
형언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.

00:45:00.455 --> 00:45:02.491
부정하는 말과 호응이 되어야죠.

00:45:02.591 --> 00:45:06.474
그러니까 형언할 방법을 찾지
못했다, 이런 말이 있어야죠.

00:45:06.574 --> 00:45:09.275
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45:09.375 --> 00:45:10.222
됐니?

00:45:10.322 --> 00:45:12.260
여러분, 여기까지입니다.

00:45:12.360 --> 00:45:14.022
여기까지 문장 표현입니다.

00:45:14.122 --> 00:45:16.929
문장 표현의 문법적인
요소들 살펴봤습니다.

00:45:17.029 --> 00:45:19.881
내용도 상당히 좀
어렵고요, 많고요.

00:45:19.981 --> 00:45:25.013
그다음에 여러분, 좀 세부적으로
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

00:45:25.113 --> 00:45:27.506
우리 아까 선생님이 소개했던
그 강의들을 더 보시는 거

00:45:27.606 --> 00:45:29.281
추천해 드리겠습니다.

00:45:29.381 --> 00:45:33.078
문법은 반복해야 되고, 죄송하지만
암기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

00:45:33.178 --> 00:45:34.804
쉽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

00:45:34.904 --> 00:45:35.951
여기까지 하겠습니다.

00:45:36.051 --> 00:45:36.927
여러분, 다음 시간에 뵈게요.

00:45:37.027 --> 00:45:38.236
수고하셨습니다.